

## [입문] 문화콘텐츠와 스토리디자인

---

주제 : 새로운 스토리와 문화콘텐츠의 변형

문화콘텐츠의 변형을 통한  
스토리의 개발에 대해 알아봅니다.



튜터 한명섭

## 새로운 스토리와 문화콘텐츠의 변형

스토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물도 아니고 완벽한 규칙을 내재한 통일체도 아니다.

스토리는 전승과 변이가 반복되는 서사적 전통의 연속성 속에서 모티프에 의해 동기화되고 작가 의식으로 완결되는 하나의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는 서사적 전통의 변이 과정 속에 놓여 있으며,

모티프는 소재를 동기화하여 스토리로 만든다.

개인성을 주장하는 예술적 담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티프가 소재를 동기화하는 방식이 변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은 암행어사 설화, 염정 설화 등이 결합되어 나타났으며 판소리 〈춘향가〉를 거친 후에 현대에 들어오면서 소설, 영화, 드라마,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변용되어 나타난다.

영화의 경우 춘향전은 1923년부터 2010년까지 열여덟 차례에 걸쳐 영화화되었다. 이 영화들은 대개 멜로드라마 장르의 관습을 답습하며 수평적 개작을 해 왔다.

‘계급을 초월한 사랑’ 모티프를 크게 바꾸지 않고 이어왔다.

2010년에는 이런 관습과는 거리가 있는 작품이 등장한다.

김대우 감독의 〈방자전〉이 그것이다.

〈방자전〉은 ‘계급을 초월한 사랑’ 모티프를 흔들어 놓았다.

방자는 계급적 차이가 큰 이몽룡과 사랑에 빠진 춘향과 사랑에 빠진다.

그 결과 새로운 주제에 의한 새로운 작품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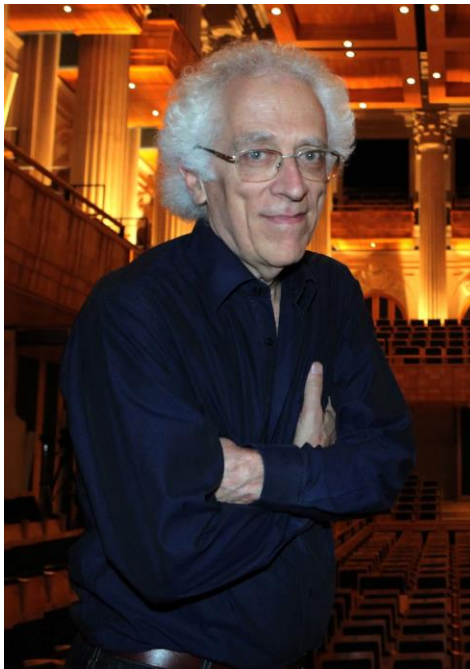


모티프는 여러 스토리에서 반복되지만, 그것이 소재를 동기화하는 방식을 계속 변한다.

동기화 방식이 변화가 스토리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을 연구한 학자가 바로 토도로프이다.

그는 러시아 민담을 중심으로 스토리의 원형과 변이형을 연구한 학자였다.



그에 따르면 스토리는 수사적 변형, 논리적 변형, 역사적 변형의 세 가지 방법으로 변형된다.

수사적 변형은 하나의 모티프 내에서 확대, 축소, 복사가 일어나는 변형이다.

논리적 변형은 남성 주인공이 여성 적대자를 모욕하는 모티프가 있으면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적 대응 구조로부터 생겨나는 변형이다.

역사적 변형은 모티프가 적용되는 사회 혹은 모티프가 적용되는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변형이다.

〈미녀와 야수〉로 이를 이해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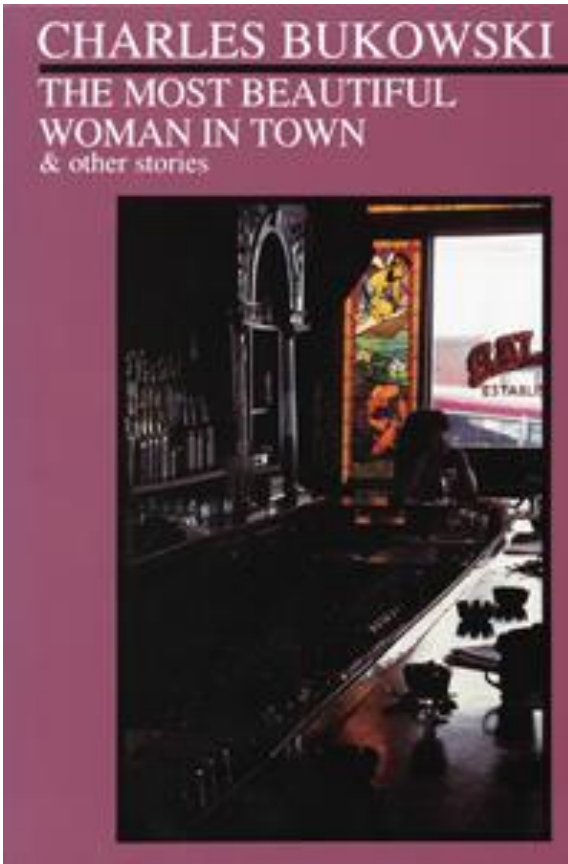
고상한 야만인 모티프는 야만인의 고상함을 알아주는 이성,  
즉 미녀의 존재와 결합할 때 흥미진진한 서사 잠재력을 갖는다.

이것의 처음은 동화 <미녀와 야수>(1756)였다.  
집단창작으로 만들어진 비유와 상징이 풍부하고,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은 전래동화였다.

이 고상한 야만인 모티프-미녀와 야수 주제는  
프랑스의 입체판 시인 장 콕토에 이르러 야수를 타락한 문명사회의 바깥에 있는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강조하는 영화 <미녀와 야수>(1946)로 변형된다.  
기존 모티프의 야수에 ‘이상적인 남성으로서의 야수’라는  
수식 어구가 더해진 수사적 변형의 성격을 갖는다.

이미지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ine212722&logNo=22056049226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마을에서 가장 예쁜 처녀’

초판본 표지

미녀와 야수 주제는 미국의 소설가 찰스 부코스키의  
〈마을에서 가장 예쁜 처녀〉(1967)에서 논리적 변형을 일으킨다.  
마을에서 가장 예쁜 처녀는 술집에서 만난 남자를 그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좋아한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가 싫은 나머지 일부러 뺨에 흠터를 만들기도 한다.  
미녀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내면을 보려고 하지 않는 남성들에게 상처받고  
무관심한 부모에게 상처받고 질투심 많은 언니에게 상처를 받으며,  
남자의 사랑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삶을 마감한다는 내용이다.  
미녀와 야수라는 익숙한 주제의 논리적 변형을 통해 작가는  
가장 축복받은 것 같은 외모가 가장 불행한 내면을 만드는  
인간의 아이러니와 삶의 부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이 주제는 역사적 변형으로도 나타난다.

마르시아스 심의 〈베개〉(2000)에서 미녀는 아름답지만 64세의 노년 여성이며 야수는 39세의 장년 남자이다.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5세 연상의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할 수 있는 시대적 인식의 변화가 등장했다.

인생의 거시적인 진행과 시간의 풍화 앞에서

인간은 성별의 차이를 넘어 누구나 미녀이며 동시에 야수이다.

숙박업소에서 다른 이들이 사용하던 베개를 절대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항상 국화 꽃잎으로 속을 채우고 희고 깨끗한 보로 마감한 베개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늙은 미녀의 허영과 그 허영 때문에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설정은 어떤 서사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온전히 새로운 스토리이다.

스토리에는 동일한 모티프가 반복되지만,

수사적 변형, 논리적 변형, 역사적 변형을 통해 독자적인 예술성을 갖추는 것이다.

